

2002. 4. 28. 서울시

01 다음 중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녕쿨 - 덩쿨 ② 부침질 - 지짐질 ③ 새앙 - 생강
- ④ 옛가락 - 옛가래 ⑤ 자물쇠 - 자물통

① 녕쿨 - 덩굴(표준어 규정 제26항)

다음 글의 () 안에 알맞은 단어는?

구비 문학(口碑文學)의 여러 영역 중에서 오랫동안 ()만 홀로 우대를 받았다. 중세적인 지배 체제를 다지는 예악(禮樂)을 이룩하면서 ()을/를 받아들여 향악(鄕樂) 또는 속악(俗樂)을 편성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으며, 고려 후기에는 ()에서 새롭게 상승한 속악이 새삼스럽게 커다란 구실을 하였다.

- ① 설화 ② 신화 ③ 민담
- ④ 시조 ⑤ 민요

속악은 고려 가요를 일컫는 말로, 민요적 성격을 지니므로 () 안에는 '민요'가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 ① ② ③ 설화, 신화는 모두 민담에 해당하며, ④ 시조는 기록 문학이다.

03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지리한 장마 ② 이사를 할려고 짐을 싸다.
- ③ 나라 안밖이 소란했다. ④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 ⑤ 그다지 넉넉치 않은 것 같다.

① 지리한 ⇨ 지루한 ② 할려고 ⇨ 하려고('려고'는 의도의 종속적 연결 어미)
③ 안밖 ⇨ 안팎 ⑤ 넉넉치 ⇨ 넉넉지

다음 중 고유어인 것은?

- ① 소문 ② 영양분 ③ 수라상
- ④ 예사 ⑤ 장마

① 소문(所聞), ② 영양분(營養分), ④ 예사(例事)는 모두 한자어에 해당하며, ③의 '수라(水刺)'는 만주어에서 온 말이다.

05 다음 중 표준어인 것은?

- ① 광우리 ② 떨국 ③ 담배꽁추
- ④ 부스럭지 ⑤ 우렁쟁이

⑤ '우렁쟁이'는 '멍게'의 방언으로, 표준어로 인정된다(표준어 규정 제23항).

① 광우리 ⇨ 광주리 ② 떨국 ⇨ 국물
③ 담배꽁추 ⇨ 담배꽁초 ④ 부스럭지 ⇨ 부스러기

다음 중 표준 발음이 맞는 것은?

- ① 샅일[상닐] ② 맑고[막꼬] ③ 공권력[공꺼력]
- ④ 관건(關鍵)[관견] ⑤ 감정(鑑定)[감 : 정]
- ② 맑고[말꼬] ③ 공권력[공꺼넉] ④ 관건[관견]
- ⑤ 감정(鑑定)[감정] ⇨ 단음 발음 * 감정(感情)[감 : 정] ⇨ 장음 발음

07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가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것은?

“×× 경찰서 앞입니다.”
 철호는 눈을 떴다. 상반신을 번쩍 일으켰다. 그러나 곧 또 털썩 뒤로 기대고 쓰러져 버렸다.
 “아니야, 가.” / “×× 경찰서입니다. 손님.”
 조수 애가 뒤로 몸을 틀어 돌리고 말했다.
 “가자.” / 철호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 “글쎄, 가!”
 “하, 참 딱한 아저씨네.” / “……” / “취했나?”
 운전사가 힐끔 조수 애를 쳐다보았다. / “그런가 봐요.”
 “어쩌다 ()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운전사는 기아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까무룩히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사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 듣고 있었다.

- ① 오발탄(誤發彈) ② 두꺼비
- ③ 바비도 ④ 태평 천하(太平天下)
- ⑤ 화수분

제시된 글은 1959년 「현대 문학」에 발표된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의 일부분이다. 이 소설은 암담한 전후 현실을 배경으로, 정신 이상이 된 노모, 권총 강도가 된 동생 영호, 양공주인 여동생, 분만 도중 숨진 아내 등 철호 일가의 비참한 삶이 결국 주인공 철호를 방향을 상실한 오발탄 같은 존재로 만드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08 다음 중 띄어쓰기가 맞는 것은?

- ① 영화도 너 같이 예쁘다. ② 12억 3456만 7898명
- ③ 이순신장군 ④ 책상 걸상등이 있다.
- ⑤ 그가 떠난지가 오래다.

- ②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한글 맞춤법 제44항).
- ① 너 같이 ⇨ 너같이 * ‘같이’는 명사·대명사에 붙어서 그 정도로 어떠한거나 어찌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 ③ 이순신장군 ⇨ 이순신 장군 *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 ④ 걸상등이 ⇨ 걸상 등이 * ‘등’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⑤ 떠난지가 ⇨ 떠난 지가 * 시간의 경과 의미가 있는 경우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09 다음 중 작가와 작품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 서정주 - 생명의 서 ② 한용운 - 수의 비밀 ③ 박두진 - 청산도

- ④ 윤동주 - 참회록 ⑤ 정지용 - 향수

① '생명의 서'는 유치환의 작품이다.

10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2000년 4월 국회 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문들이 여야(與野) 3당의 움직임에 대해 보도한 기사의 표제(表題) 큰 제목(題目)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3당 대결 총선전 돌입
- ㉡ 총선 '지역 대결 구도'로
- ㉢ 3당 총선 "내 갈 길 간다"
- ㉣ 총선 체제 본격 돌입
- ㉤ 총선 '지역주의 대결' 우려

이들을 기자의 주관성 개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면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부터 기자의 주관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까지 ()의 순서로 그 개입의 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① ㉠-㉡-㉢-㉣-㉤ ② ㉡-㉢-㉠-㉤-㉣
- ③ ㉣-㉤-㉠-㉡-㉢ ④ ㉣-㉠-㉢-㉡-㉤
- ⑤ ㉢-㉠-㉣-㉤-㉡

제시문을 기자의 주관성 개입 정도에 따라 배열해 보면 '㉣-㉠-㉢-㉡-㉤'의 순서로 그 정도가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고층 건물의 틈바구니에 낀 고옥(古屋)이라는 무대 설정에서부터 전통과 현대의 충돌이라는 주제를 암시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달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상을 그린 희곡은?

- ① 임희재 - 고래 ② 차범석 - 불모지 ③ 이근삼 - 원고지 ④ 천승세 - 만선 ⑤ 오대석 - 환절기

차범석의 '불모지(不毛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최 노인 일가의 비극을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가족 해체와 가치관의 변화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세대 고발적인 성격이 강한 사실주의 극이다. 1950년대의 서울 중심가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빌딩 숲으로 상징되는 외래 문화와 구식 한옥으로 상징되는 전통 문화와의 충돌로 대표되는 전후 사회의 모순을 세대 간의 갈등 구조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1950년대의 한국 사회를 구세대도 신세대도 튼튼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폐한 '불모지(不毛地)'라고 선언하고 있다.

다음 중 () 안에 맞는 것은?

문학 작품의 속성과 가치는 모방, 즐거움, 교훈, 표현, 구조 등의 관점에서 해석,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리얼리즘은 (㉠), 낭만주의는 (㉡), 카타르시스는 (㉢), 당의정설(糖衣錠說)은 (㉣)과 관련이 깊다.

- ① 구조 - 모방 - 표현 - 즐거움 ② 표현 - 모방 - 즐거움 - 교훈
- ③ 모방 - 표현 - 교훈 - 즐거움 ④ 표현 - 즐거움 - 교훈 - 구조
- ⑤ 모방 - 표현 - 즐거움 - 교훈

㉠ 리얼리즘(사실주의)은 사물을 과장·왜곡하지 않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 모방
 ㉡ 현대시의 주류를 형성하는 낭만주의는 표현에 치중한다. ⇨ 표현
 ㉢ 심리적 정화(淨化)를 의미하는 카타르시스(catharsis)는 문학에 있어서 쾌락적 기능을 한다. ⇨ 즐

